

사회복지 주간 동향(24.4.15.~4.19.)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이상일 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학생들의 활동이 생활공동체 형성에 큰 힘 될 수 있을 것”>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웃돌봄 활동에 용인예술과학대-용인대 학생 60여명 동참 >



- * 용인특례시가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의 대학생들과 힘을 모음
 - 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내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지난 11일 시청에서 열었다고 12일 밝힘
 - 시청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참여 학생 위촉장 수여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됨
- *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학생 서포터즈’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용인대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여

- 이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지역 사회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에 힘을 더함
- 이상일 시장은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본업으로 바쁜 시간 속에서도 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힘을 더하면 생활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 시장은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단어는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을 뜻한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대학생 서포터즈의 의미있는 활동은 용인을 살맛 나는 고장으로 만들고, 유대관계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 *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수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모자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 해당 가구는 거동 불편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청소를 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평소 수시로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를 묻던 복지관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A씨의 건강을 생각해 긴 시간 설득 작업을 진행해 청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냄
 - 이날 협의체 위원과 복지관 직원 등 9명은 집 안에 버려진 물건과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용가능한 물건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벽면과 바닥의 찌든 때를 제거함
 - A씨는 “두 달 전부터 팔이 아파 활동 어려워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은 탓에 집이 엉망이 됐다”며 “지역 이웃들의 도움으로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함
 - 김말선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풍덕천1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백1동·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식품지원



※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1동과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각 취약계층에 갈비탕과 반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지난 4일 기흥구 동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한식당 동백숯불 갈비와 취약 가구에 매월 갈비탕 10인분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음
 - 협약에 따라 동백숯불갈비는 이번 달부터 향후 2년간 매월 갈비탕 10인분을 동 협의체에 기탁하고, 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 가정에 기탁품을 전달할 예정
 - 구본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백숯불갈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 주민을 살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기흥구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난 5일 ‘꿈자람자원봉사회’와 밀반찬 지원 협약을 맺음
 - 협약을 맺은 두 단체는 오는 9월까지 저소득 가구 15곳에 월 1회 밀반찬을 전달
 - 신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류상택 위원장은 “밀반찬 지원은 혼자 살면서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1동, 신갈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모현읍·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 체결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기흥구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힘
 - 처인구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배)는 지난 12일 건국유업, 서민반찬과 각각 '맞춤형 건강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음
- * 이번 협약은 시 협의체의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위기상황을 사전에 차단함
 - 협약에 따라 건국유업 용인모현대리점과 서민반찬 모현직영점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중장년 취약계층 1인 가구 10명을 각각 지원
 - 건국유업은 주 3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살핌, 또 2회 이상 음료를 수거하지 않는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면 즉시 읍에 연락하는 협조체계를 구축, 서민반찬은 월 2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반찬을 제공해 대상 가정의 영양불균형 해소에 주력함
 - 이옥배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 1인가구의 안부를 살뜰히 살피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같은 날 기흥구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경아)는 지역 내 업체인 SBS아카데미 뷰티미용학원 용인캠퍼스와 저소득 홀로어르신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음
 - 이 협약으로 SBS아카데미 뷰티미용학원 용인캠퍼스는 올해 5월부터 1년간 저소득 홀로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는 분기에 1회 이상 회당 10명 이내로 구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 이상미 SBS 아카데미 뷰티미용학원 용인캠퍼스 원장은 "작은 재능으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모현읍·구갈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45종 위기정보 활용하여,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 < 위기정보 입수 확대(44종→45종) 등으로 채무·의료위기 포착 강화 >
< 연락두절 등 위기가구 소재 파악 및 복지 지원 추진 >

45종 위기정보 활용하여, 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19개 기관 정보 입수해 20만명 규모 발굴
위기정보 확대로 채무·의료위기 포착 강화



- *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힘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 *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
 -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과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
 -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
- *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함,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함

- ①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장애인→(추가)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 ②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산정특례 등록자→(추가)산정특례 미등록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5%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계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 >
<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24.12월) >

- * 보건복지부는 4월12일(금)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발표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3월 ~ 12월 (10개월간)
 -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총괄, 분석), 지자체(현장조사)
 - 조사대상 :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9만 991개소)
 - 조사내용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화장실 등 26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남
 - 설치율 : 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
 - 적정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남

[조사연도별 설치율 비교]

조사연도	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비 고
1998	-	47.4%	-	*지자체 조사
2003	-	75.8%	-	*지자체 조사
2008	107,730	77.5%	55.8%	*복지부 조사
2013	141,573	67.9%*	60.2%	*복지부 조사
2018	185,947	80.2%	74.8%	*복지부 조사
2023	190,991	89.2%	79.2%	*복지부 조사

-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 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증양정부 복지현안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0개 선정 >
<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양육코칭,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등 실시 >

- *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함
 -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
 -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
 -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
 -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
 - (서울)관악구, (부산)강서구,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울산)남구, (경기)시흥시, 오산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강원)원주시, 동해시, (충남)논산시, 천안시, (전북)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목포시, 나주시, (경북)예천군
-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4개 시·도 선정, 2년간 운영 후 전국확대 예정 >

-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3.12.13 대책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자가진단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관계형성 은둔 특화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교육, 가족심리상담, 당사자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 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부모참여 대인접촉 소통기술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 (일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복귀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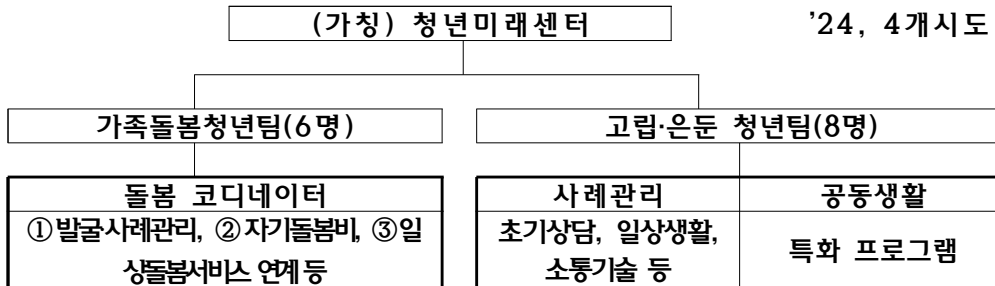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시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

붙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내용**

- (전담지원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 고립·은둔청년



※ 행정지원으로 청년인턴 센터당 6명 추가 파견(복지부에서 채용, 총 24명)

- ('24년 예산안) 3,403백만원 / 자치단체보조(70%)
- (전담인력) 총 56명(4개소 / 개소당 14명: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 8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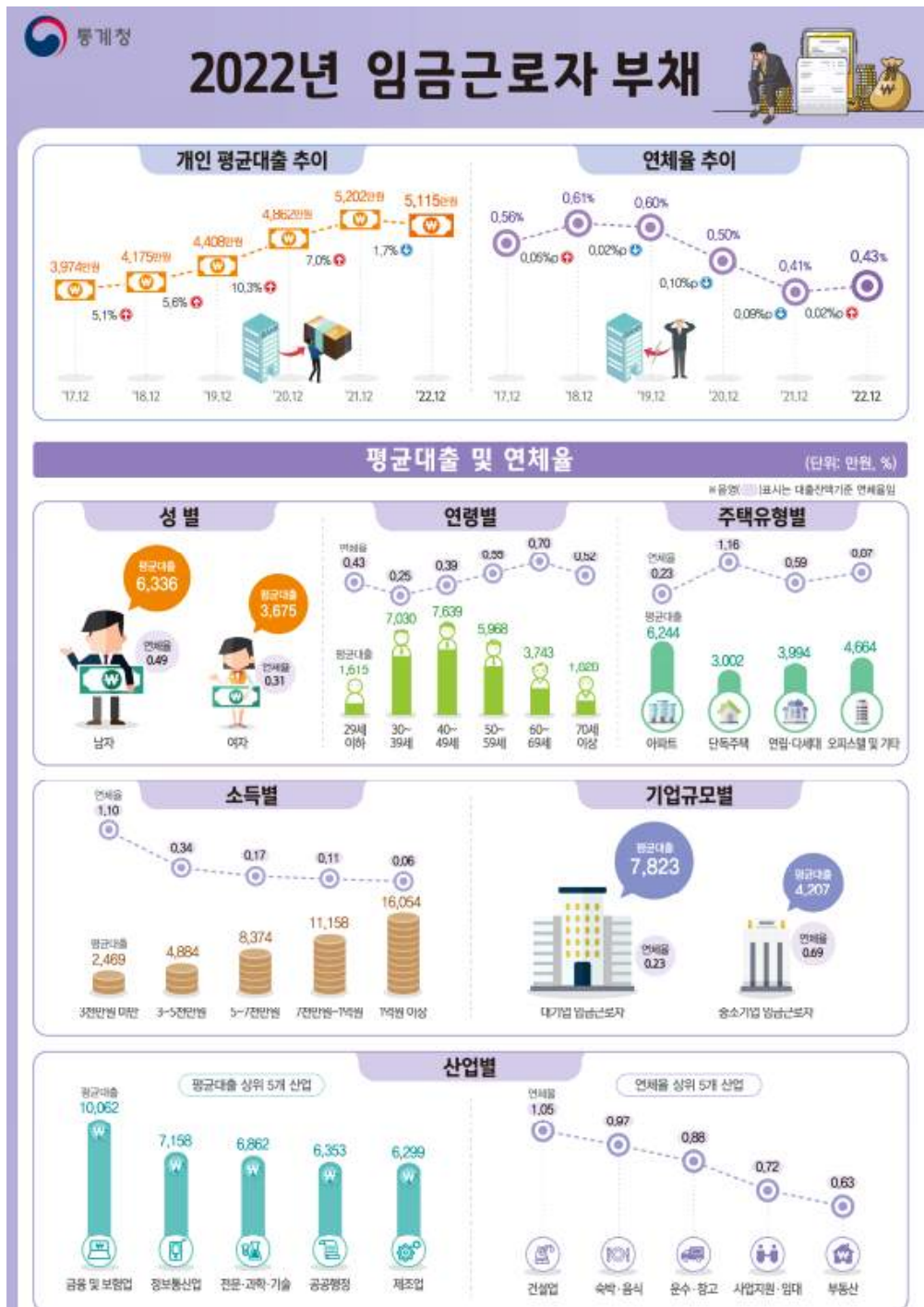
- (가족돌봄) 발굴·사례관리(2,400명) / 자기돌봄비 지급(960명)
 - ① (발굴) 지역 내 학교·병원·청(소)년센터 등과 원스톱 연락체계 구축
 - ② (밀착 사례관리) 청년(학업·일자리·정서)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 대상 맞춤형 연계(돌봄·요양·의료 등 → 우선 특례 대상자로 제도 개선)
 - ③ (자기돌봄비) 가족돌봄 부담에서 벗어난 청년에 학업, 취업준비 등 본인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당 연 최대 200만원)
- (고립·은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23.12.13. 대책 발표)
 - ① (발굴) 조기발굴체계(온라인 자기진단, 129 청년창구) 마련
 - ② (맞춤형 지원) 전담 기관·인력 통해 맞춤형 서비스*(초기상담, 일상회복, 가족관계회복, 일경험 등) 제공
- 지자체 및 미래센터에서 마련한 공간에서 제공: 960명 대상(청년 320명, ssss가족 640명)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 자료 : 통계청 자료(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